

- 사회적 차원의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비효율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술 수용 자체를 저해하는 기업 활동이 있는지’, ‘시장에서의 거버넌스가 실질적 외부효과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마셜 밴 엘스타인 외, 2017)
 - 제도는 사회적 총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Djankov et al., 2003) 소비자 후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각에 편향된 제도화 논의가 아닌, 소비자 개개인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는 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경쟁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조정기(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한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디지털데일리, 2023)
- 이커머스의 진화는 단순히 유통과 소비 방식의 변화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가 스마트한 소비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을 통해 공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이 플랫폼은 특정 산업이 아닌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산업이 성장하기란 매우 어려움
- 새로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의 역동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함